

# 마법적인 언어와 무질서한 질서의 매혹

실비아 플라스의 《거상》

윤준 외 옮김  
청하/A5신/164면/3800원

자주 꺼내보는 책이 있고, 고이 모셔두는 책이 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다. 술을 곁에 두게 하는 책이 있고, 술 마시러 나가게 하는 책이 있고, 술을 마시고 나서 찾게 되는 책이 있다. 좀 그럴 듯해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실비아 플라스 정도라면 위의 세 경우에 모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닐까.

플라스의 시집 《거상》을 처음 구해서 읽던 1992년 여름밤, 나는 싸구려 위스키를 훌쩍이고 있었다. 밤마다 뭔가를 끄적거리던 시절이었고, 에스프레소 잔에 술을 한잔씩 들이키던 습관도 몸에 배어 있었다. 위스키 한잔에, 자살한 여류시인이라. 김수영은 박인환을 통속시인이라 비웃었는데, 지금 보면 그의 〈목마와 숙녀〉를 연상시키는, 정말 유치해 보이는 밤의 장면이다.

“서른 둘의 짧은 생애, 두 번의 자살미수, 테드 휴즈와의 결혼과 불화. 가스레인지에 머리를 집어넣고 세번째 자살시도에 성공했을 때, 그녀는 사람들 가슴에 하나의 신화로 각인됐다.”

제라늄처럼 붉고 선명한 그녀의 생애는 이렇게 요약된다. 그 탓인지 그녀의 유고시집 《에어리얼》은 이례적으로 5천부나 팔려나갔다. 《거상》은 플라스의 첫시집이지만, 한국판 《거상》은 첫시집과 유고시집을 함께 번역했다. 중간은 없고 시작과 끝이 책의 앞과 뒤를 견고하게 막아선 형국이다.

이 시집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난해하다” “막다른 곳에 몰린 취약한 자아가 던져 놓은 날카로운 상징들로 빛난다” 등이지만, 당시 나의 독후감은 매우 감미로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마 시집의 첫 시 첫 부분 때문일 것이다.

“저기 두 처녀가 있다. 한 명은 집안에 / 앉아 있고, 다른 한 명은 바깥에 있다. / 온종일 그늘과 빛의 이중주가 / 이들 사이에서 연주된다” (〈페르세포네의 두 자매〉).

〈어두운 집〉도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이곳은 무척 크고 어두운 집. / 잿빛 종이를 씹으며, / 아교방울을 짜내며, / 휘파람 불며, 귀를 꿈틀거리며, / 다른 것을 생각하며 / 조용한 구석의 작은 방부터 하나 하나 / 나 혼자 이 집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혼자’와 ‘크고 어두운 집’과 ‘잿빛 종이’가 ‘아교방울’과 ‘휘파람’과 ‘조용한 구석의 방’과 쌍을 이루며, 섬뜩하긴 하지만 ‘방’의 안온한 이미지로 ‘고요한 짓누름’을 견뎌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과연, 이런 언어감각과, 그 언어들의 비틀거리는 질서에 나는 이끌렸던 것 같다. 지금 다시 꺼내 읽어도 이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나의 모자람이 아니라, 온 천하에 퍼뜨린 자신의 개인사를 몇 번의 기교적인 호흡으로 무마할 수 있는 플라스의 고유한 시적 재질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시가 잘 써지지 않을 때마다,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술을 마신 뒤에도, 가끔 플라스의 시를 들춰보곤 했다. 자꾸 꺼내보게 되는 책은 아마 자신에게 힘을 주는 책이 아닐까? 그런데 요즘은 시를 쓰지 않으니, 이번에 읽고 꽃아두면 언제나 다시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강성민 기자



**출력" 24시간**  
당신을 위한 **논스톱**  
이제는 대동이 책임지겠습니다

**자동하리꼬미무료**  
대동전산

**IBM & MAC 전문출력**  
Corel Draw, 아래한글, MS-Office, 훈민정음, 매킨토시등 기타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및 IBM 분판출력  
필름분판출력(4x6전지)  
고해상대형드럼스캔  
대형실사출력, CLC칼라출력  
인화지, 단도필름, 레이저프린트  
칼라복사(다량복사시할인)  
Data CD Backup

● 출력문의 환영합니다 ●

**대동전산**  
2275-0196~7  
E-mail: sogo0318@chollian.net

명보극장 ● 화계도  
울지초3가 지하철역 10번출구  
울지초3가 시장